

광주·전남교육감 선거 '통일공약' 봇물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

6·15 광주본부 '518인이 원하는 정상 합의문' 발표

정상회담 앞두고 후보들 공약 경쟁 치열

통일교육 협약 제정·역사탐방 등 눈길

남북정상회담이광주시·전남도교육감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과 남북교류 사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며 선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변화된 남북 관계에 맞춰 남북의 교육 주체들이 모여 공동 통일교육 협약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남북의 교육 주체들이 모여 통일 교육 협약을 함께 만들어 우리 사회의 정치·교육을 선진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최근 학생 해외체험프로그램인 ‘무등글로벌프론티어’ 정책을 발표하며 “대륙을 꿈꾸는 ‘고구려 열차’와 평화로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성열차’ 운영을 통해 청소년 평화 통일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학생 대표단을 초청하고, 수확여행 등 남북 학생들과 교원들의 교류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장 교육감 지난달 북한 수확여행과 남북학생 교류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해 달라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제안했다.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통일 도모라는 차원에서 남북간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남북교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중학교 2년들의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역사탐방이다”며 “이를 통해 국토사랑과 역사교육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비용을 대고 전국에서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받아 학생과 시민이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펼치겠다”며 “특히 황해도와 개성시 등에 나무를 가꾸고 육묘장을 만들고 싶다. 북녘 산하를 푸르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파랑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경선에 나선 정·최 후보는 지난 23일 남북교육교류 활성화와 학생 평화

감수성 개발 등을 담은 전국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5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일희망열차·북한역사탐사 추진 ▲평화교육 교재·교과서 개발에 교사와 학생 참여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다양한 통일교육과 남북교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변화할 남북관계에 맞춘 통일교육을 고민할 시점에 적절한 공약들로, 실현 가능성으로 고려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광주 518인이 원하는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다.

6·15 광주본부는 25일 오전 11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염원 광주 각계 518인 평화통일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공포에서 온 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닦아, 전 분야에서 힘을 합쳐 인류에 기여하는 평화를 꿈꾼다”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평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상회담 직후인 5월에 6·15 민족공동위원회 차원의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한 마당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

안한다”며 “이는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오월정신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임 모씨(76)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올림픽으로부터 지금까지 멀고 먼 길을 돌아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남북 정상들이 지금까지 분단된 상황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정상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행사를 주최한 6·15 광주본부 박종익 집행위원장은 “평화통일을 위한 518명의 서명도 받았고, 금남로 일대에 한반도기를 내걸었다”며 “한반도기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제작비용을 모은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내걸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전남대병원 지역최초 심장이식수술 성공

확장성 심근병증 60대 환자에 뇌사자 심장 이식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전남대병원 심장이식팀은 지난달 26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 모씨(63)에게 20대 남성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을 이식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근질환이다.

이씨는 강력한 심근 수축 약물을 사용해도 큰 효과가 없었으며, 심근 수축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의 절반에도 못미쳐 심장이식 외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수술이 절실한 상태였다.

다행히 이씨는 이식수술 후 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심장이식팀은 순환기내과 김계훈·조재영 교수, 흉부외과 오상기·정인석·이교선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진체제로 5시간 만에 고난이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식수술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계훈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말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기심부전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인공 심장이나 심장이식 등의 치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심장 이식 시대를 열어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희망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992년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심장이식 수술은 최근에는 연간 100여 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기심부전 환자들은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위해 심장 기증이 많은 서울지

역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술을 통해 간이식, 신장이식 등을 포함 지역 최고의 장기이식 거점병원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앞서 상반된 목소리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vs “정시확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앞두고 교육단체별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유지·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일부에서 ‘학생부종합형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호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목 위주 암기·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위험한 상황이다”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전형 시기를 통합하되 통합으로 학생들이 수능성적을 알고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대학들이 수능을 중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에 내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수능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 기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버려진 줄 알고...” 쇼핑백 가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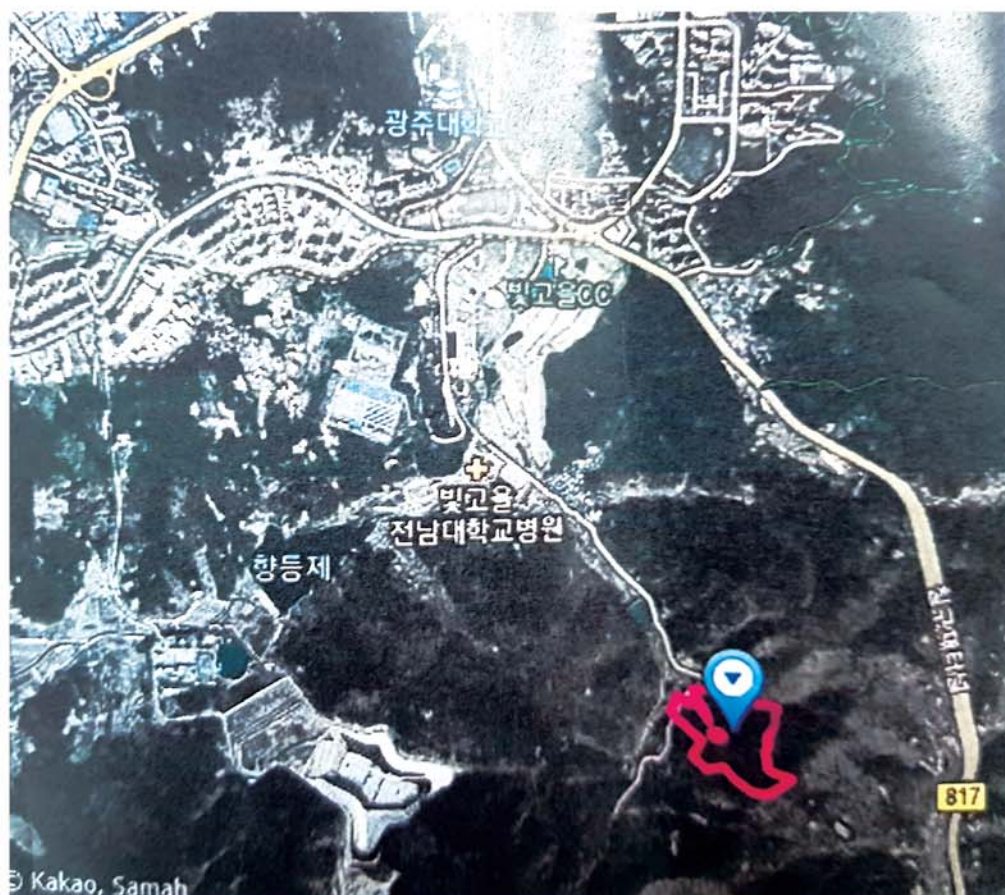
○...종이백을 잠시 두고 마트에 들어간 사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수거해간 폐지줍노인이 경찰서 행.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오 모씨(68)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북구 문흥동 한 마트 앞에서 안 모씨(51)가 잠시 옆에 있는 난간에 의류

2벌과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올려두고 들어간 사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수거해 간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조금이라도 폐지를 더 모으려는 욕심에 쇼핑백을 수거했겠지만 새 옷과 현금 등의 내용물을 신중히 살펴봤다면 경찰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며 한숨.

/김종찬 기자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5만원 (일사불 완불조건)
- 문의. 010-6838-1230